

# Market Issue

## 미국의 군수 물자 보충

- 이란 전쟁은 소강 상태 진입. 미국은 전쟁으로 소진된 군수 물자를 빠르게 보충할 필요
- 트럼프 행정부는 FY2027 국방 예산을 전년대비 42% 증액한 1.5조달러를 요청. 증액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우선 순위 정책과 핵심 군수 물자, 광물 확보에 집중
- 군수 물자 비축량이 늘어나면서 생산에 요구되는 광물 수요도 늘어날 전망. 핵심 광물 비축량 프로젝트도 수요 증진 요인. 전략 자원 기업으로 구성된 REMX ETF로 접근

### 이란전에 소모된 미사일 재고 보충 필요

이란 전쟁은 소강 상태에 진입했다고 생각된다. 지난 주말 파키스탄 회담에서 미국과 이란의 합의 불발, 이후 시행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로 불안감이 재차 확대됐지만 미국의 해협 봉쇄 조치도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 판단된다. 봉쇄조치 이후 이란의 보복 조치는 제한적이고 양측은 핵 개발 금지 기간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주고 받고 있다는 점도 유의미하다. 최종적으로는 2015년 핵합의(JCPOA)에서 제시된 핵 금지 기한(10년) 보다 긴 기한으로 양국의 합의가 도달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는 전쟁 이후의 환경에 초점을 맞출 시기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이란 전쟁에서 소진된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군수 물자(munitions)의 재고를 보충하는 작업이다. 지난 5~6주 기간동안 미군이 예상보다 많은 양의 군수품을 소비하면서 중국 견제에 필요한 물자가 위험할 정도로 부족해 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팔란티어 CTO는 만약 중국과의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탄약은 약 8일만에 소진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FY2027 예산안에서도 군수물자의 재고 보충은 우선 순위로 지정된 모습이다. 이번에 요청한 예산은 전년대비 42% 상승한 1.5조달러로 큰 폭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증액분 중 상당 부분이 신규 장비 조달(procurement)로 집중될 전망이다. 늘어난 국방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 다른 부처와 기관들의 예산은 큰 폭의 삭감을 예고했다.

그림 1. FY2027 국방 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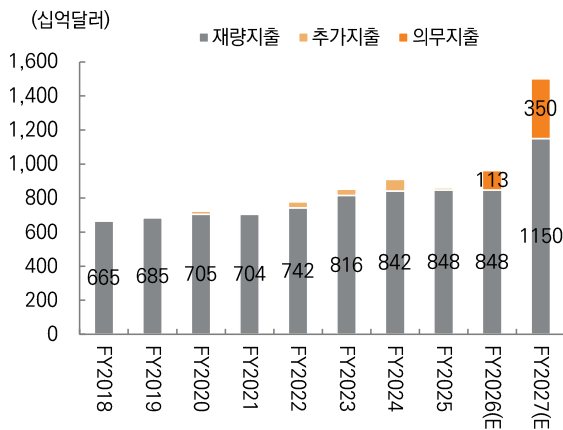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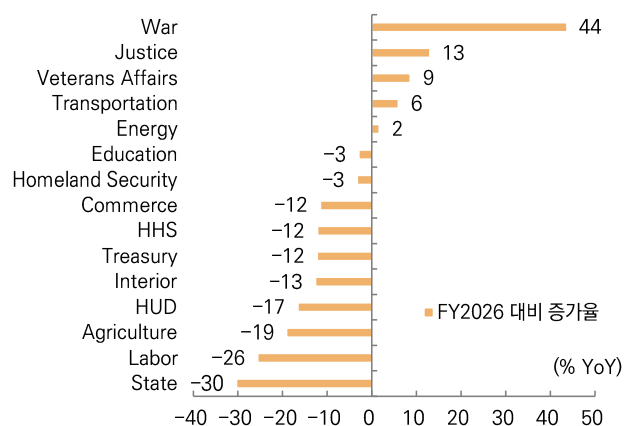


그림 2. FY2027 백악관 예산안



증액분 중 상당량은 트럼프의 행정부의 우선 순위 정책에 집중될 전망이다. 2025년부터 강조되어 온 골든돔과 황금 함대(Golden Fleet)와 관련된 조선 인프라 증진, 드론과 같은 프로젝트들과 함께 군수 물자 보충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12개의 핵심 군수 물자(critical munitions)를 확보하고, 해당 군수품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 증진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방산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의 비축 규모를 늘리고 전체적인 공급망 강화에도 지원에 나설 생각이다. 전쟁 직후 국방부가 의회에 2,000억달러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는데, 상당 부분은 재고 보충을 위한 예산으로 추정된다.

또한 미국 국방부는 최근 기준 방위 산업 컨트랙터들에게 무기 생산량을 늘리는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GM, Ford와 같은 자동차 기업들과도 무기 생산 증진 관련해 논의하기도 했다. 해당 기업들이 보유한 제조 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생산량을 늘리려는 구상을 하는 모습이다. 기존 방위 기업에만 의존해서는 탄약 보충을 원하는 기한내에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영향이다.

물론 백악관이 요청한 예산안이 그대로 차기연도 예산이 책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주된 관심 분야가 국방에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백악관이 요청한 1.5조가 그대로 책정되지는 않더라도 전년대비 유의미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높다. 또한 1.5조달러 중 3500억달러는 공화당 표만 요구되는 예산 조정 프로세스를 활용할 방침인데, 해당 방안으로 통과될 경우 3500억달러는 의무 지출(mandatory)로 분류되어 향후 예산의 안정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재량 지출(discretionary)로 분류되는 일반 국방 예산과는 달리 의무 지출은 한번 통과되면 향후에는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예산 조정 프로세스 중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는 직면할 수 있다.

## 군수 물자 보충 과정에서 핵심 광물 수요도 증가

군수 물자 비축량이 늘어나면서 생산에 필요한 광물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장갑을 관통하는 고성능 탄약에는 밀도 높은 고등급 텅스텐이 핵심이다. 안티몬은 탄피 강화, 폭발물, 장비를 화염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난연제에 필요한 물질이고, 이트륨 같은 경우도 고온을 잘 견디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제트 엔진의 코팅 소재로 사용되는 소재다.

표 1. 전쟁부 투자 항목

| 항목                                                | 내용                                                     |
|---------------------------------------------------|--------------------------------------------------------|
| 골든돔 (Golden Dome)                                 |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미사일 방어 센서 및 요격체 개발, 미사일 무력화 기술 개발 지원)   |
| 군인 급여 인상 (Pay Raise for the Troops)               | 군 급여 인상 (E-5 이하 +7%, E-6 ~ O-3 : +6%, O-4 이상 : +5% 인상) |
| 우주 (Space)                                        | 우주 안보 및 경제적 이익 확보 (골든돔, 발사 인프라 구축, 기타 기밀 프로그램)         |
| 해양 패권 회복 (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 | 해양 방위 산업 기반 재건 (각 부처별 조선 수요 전면 파악 및 함대 재건)             |
| 조선 (Shipbuilding)                                 | 전투함 18척, 비전투함 16척 조달 (트럼프급 전함, 차세대 호위함 포함 황금 함대 창설)    |
| 핵심 탄약 (Critical Munitions)                        | 12개 핵심 탄약 신속 조달 (생산 능력 확대)                             |
| 핵심 광물 (Critical Minerals)                         | 핵심 광물 및 공급망 투자 확대 (국가 비축 부족 해소 및 대외 의존도 축소)            |
| 전투력 유지 (Keeping Warfighters in the Fight)         | 전투 및 작전 의무 부서 신설 (전투 가용성 향상,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강화)           |
| F-47 전투기 (F-47)                                   | F-47 6세대 전투기 개발 가속화 (2028년 첫 비행 목표)                    |
| 국경 보안 (Homeland Security Border Initiative)       | 남부 국경 대응 능력 강화 (수송, 센서, ISR 역량 확대)                     |
| 핵 (DOW Nuclear Enterprise)                        | 핵 전력 현대화 및 체계 재구축 (핵 억지력 유지)                           |
| 무인항공체계 (Unmanned & Counter-Unmanned Systems)      | 무인·대무인 체계 투자 확대 (드론 전력 우위 확보)                          |
|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 AI 군사 활용 확대 (AI 생태계 확장 및 GenAI.mil 지원)                 |

자료: U.S. Department of War,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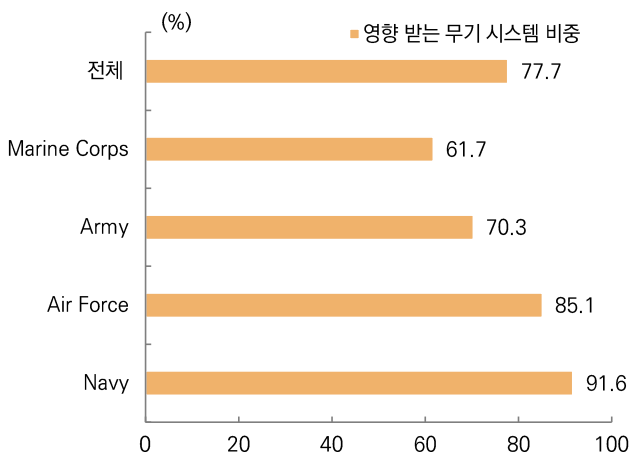
게르마늄(Germanium)과 갈륨(Gallium)은 드론과 미사일의 조준 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게르마늄은 적외선 등 이미지 센서에 사용되고 갈륨은 GaN 반도체에 필요한데, GaN 반도체는 실리콘 기반 반도체에 비해 고주파 특성이 높아 THAAD와 같은 고성능 레이더망에 필요한 부품이다. 드론과 미사일 유도 시스템, 요격 미사일에는 영구자석도 필수적 부품으로, 영구 자석 생산에 요구되는 희토류도 중요하다.

군수 물자 수요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광물 자체의 비축량도 늘릴 예정이다. 우선 180억달러를 투입해 국방 비축 물자(NDS)를 확보할 방침이다. FY2026년에 배정된 23억 달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민간용 광물 비축 프로그램인 Project Vault와는 달리 오로지 방위에 필요한 전략적 광물을 비축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방부가 필요한 리튬, 텅스텐, 티타늄 등을 직접 구입하게 된다.

또한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DPA)에 의거한 구매에 필요한 예산도 FY2026년에 배정된 21억달러에서 304억달러로 확대된다. DPA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물품을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공급망 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핵심 광물 채굴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정책 자금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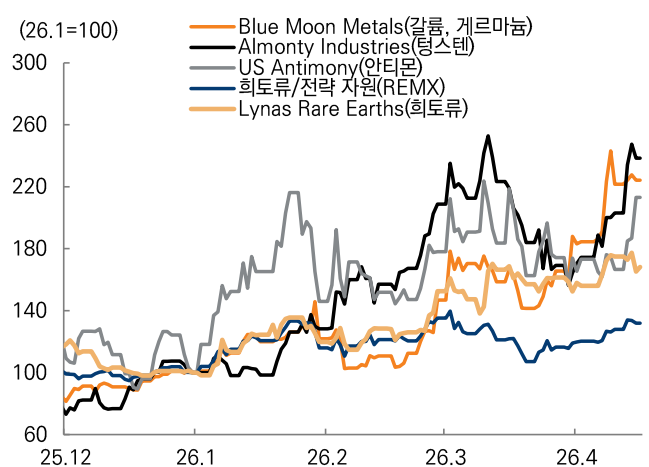
군수 물자를 비롯한 각종 방위품에 필요한 광물을 확보하는 작업은 미국에게 상당히 시급한 과제다. 2025년부터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가 높은 영향이다. 자체적인 광물 공급망을 갖춰야 중국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원활하게 군수 물자를 보충할 수 있다. 다음달 예정된 미중 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핵심 광물 전반에 대한 접근은 REMX ETF로 접근하는 방법이 유효하다. 희토류, 전략 광물 산업에서 총 매출액의 최소 50% 이상이 발생하는 기업을 편입하고 있다.

그림 3. 광물 공급 차질 발생시 영향 받는 무기 비중



자료: The Oregon Group,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핵심 소재 채굴 기업들의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2. 백악관이 요청한 FY2027 육군, 해군, 공군 예산

(US bn)

|                                                           | FY 2026      | FY 2027        | 증감(\$)       | 증감(%)      |
|-----------------------------------------------------------|--------------|----------------|--------------|------------|
| <b>육군</b>                                                 | <b>207.0</b> | <b>254.3</b>   | <b>47.3</b>  | <b>23%</b> |
| 인건비 (Military Personnel)                                  | 77.7         | 80.3           | 2.7          | 3%         |
| 운영 및 유지비 (Operation & Maintenance)                        | 73.0         | 88.6           | 15.5         | 21%        |
| 군사장비 조달비 (Procurement)                                    | 30.7         | 60.5           | 29.8         | 97%        |
| 예비군 군사장비 조달비 (Procurement Reserve Components)             | 3.0          | 2.6            | -0.4         | -13%       |
| 연구 개발·시험·평가비 (Research Development, Test & Evaluation)    | 18.3         | 18.7           | 0.4          | 2%         |
| 군사 시설 건설 및 가족 주택 (Military Construction & Family Housing) | 4.2          | 3.5            | -0.7         | -16%       |
| <b>해군</b>                                                 | <b>307.1</b> | <b>380.4</b>   | <b>73.3</b>  | <b>24%</b> |
| 인건비 (Military Personnel)                                  | 67.3         | 70.5           | 3.2          | 5%         |
| 운영 및 유지비 (Operation & Maintenance)                        | 92.3         | 110.7          | 18.4         | 20%        |
| 군사장비 조달비 (Procurement)                                    | 103.4        | 150.0          | 46.7         | 45%        |
| 예비군 군사장비 조달비 (Procurement Reserve Components)             | 0.8          | 3.0            | 2.2          | 258%       |
| 연구 개발·시험·평가비 (Research Development, Test & Evaluation)    | 34.7         | 36.2           | 1.5          | 4%         |
| 군사 시설 건설 및 가족 주택 (Military Construction & Family Housing) | 8.7          | 9.9            | 1.2          | 14%        |
| <b>공군</b>                                                 | <b>294.5</b> | <b>386.7</b>   | <b>92.2</b>  | <b>31%</b> |
| 인건비 (Military Personnel)                                  | 53.2         | 55.6           | 2.4          | 5%         |
| 운영 및 유지비 (Operation & Maintenance)                        | 83.3         | 102.7          | 19.3         | 23%        |
| 군사장비 조달비 (Procurement)                                    | 74.7         | 101.2          | 26.6         | 36%        |
| 예비군 군사장비 조달비 (Procurement Reserve Components)             | 0.5          | 0.5            | 0.0          | 2%         |
| 연구 개발·시험·평가비 (Research Development, Test & Evaluation)    | 77.3         | 114.8          | 37.5         | 49%        |
| 군사 시설 건설 및 가족 주택 (Military Construction & Family Housing) | 5.6          | 11.9           | 6.3          | 114%       |
| <b>합계</b>                                                 | <b>808.6</b> | <b>1,021.4</b> | <b>212.7</b> | <b>26%</b> |

자료: U.S. Department of War,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3. 군사장비 조달(Procurement) 예산

(US bn)

|                                             | FY 2026      | FY 2027      | 증감(\$)       | 증감(%)      |
|---------------------------------------------|--------------|--------------|--------------|------------|
| <b>육군</b>                                   | <b>30.7</b>  | <b>60.5</b>  | <b>29.8</b>  | <b>97%</b> |
| 항공기 (Aircraft Procurement)                  | 4.1          | 1.9          | -2.1         | -52%       |
| 미사일 (Missile Procurement)                   | 8.0          | 36.6         | 28.7         | 360%       |
| 무기 및 차량 (Weapons & Tracked Combat Vehicles) | 3.5          | 3.7          | 0.2          | 7%         |
| 탄약 (Procurement of Ammunition)              | 4.9          | 5.5          | 0.5          | 11%        |
| 기타 장비 (Other Procurement)                   | 10.1         | 12.7         | 2.6          | 26%        |
| <b>해군</b>                                   | <b>103.4</b> | <b>150.0</b> | <b>46.7</b>  | <b>45%</b> |
| 항공기 (Aircraft Procurement)                  | 17.7         | 34.4         | 16.7         | 94%        |
| 무기 (Weapons Procurement)                    | 10.2         | 22.6         | 12.5         | 123%       |
| 탄약 (Procurement of Ammunition)              | 1.3          | 2.0          | 0.6          | 46%        |
| 함정 건조 및 개조 (Shipbuilding & Conversion)      | 45.1         | 65.8         | 20.7         | 46%        |
| 해병대 장비 (Procurement, Marine Corps)          | 4.0          | 6.3          | 2.3          | 58%        |
| 기타 장비 (Other Procurement)                   | 20.5         | 18.9         | -1.6         | -8%        |
| <b>공군</b>                                   | <b>74.7</b>  | <b>101.2</b> | <b>26.6</b>  | <b>36%</b> |
| 항공기 (Aircraft Procurement)                  | 30.1         | 30.6         | 0.5          | 2%         |
| 미사일 (Missile Procurement)                   | 6.3          | 11.4         | 5.1          | 80%        |
| 탄약 (Procurement of Ammunition)              | 0.9          | 0.9          | 0.0          | 5%         |
| 우주군 장비 (Procurement, Space Force)           | 4.3          | 19.1         | 14.8         | 344%       |
| 기타 장비 (Other Procurement)                   | 33.1         | 39.2         | 6.1          | 19%        |
| <b>합계</b>                                   | <b>208.7</b> | <b>311.7</b> | <b>103.0</b> | <b>49%</b> |

자료: U.S. Department of War,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매매를 권유한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